

나라꽃 무궁화 작품 전시회 개최

완주 무궁화 테마박물관 일원서 열려... 이영자 소장가 10여년간 수집 작품 20여점 전시



이영자 소장가

완주군에서 유희태 제8기 민선 완주군수 취임 이후 각별한 관심을 갖고 나라꽃 무궁화의 특별한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매년 무궁화가 만개하는 기간 동안 열리는 문화축제가 올해에는 지난 27일과 28일 양일간에 걸쳐 완주군 고산 자연휴양림 입구 무궁화 테마박물관 일원에서 열렸다. 특별히 이번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아주 특별한 이영자 소장가의 나라꽃 무궁화 작품 전시회가 열리고 있어 주목됐다. 축제 기간 동안 전주에 사는 가정주부인 이영자 소장가가 10여 년간 화랑기와 고미술품 경매장을 찾아다니며 작품을 팔아 수집한 무궁화 작품 40여점 중 20여점을 엄선해서 무궁화전시관에서 선보이고 있다. 전시 주요 작품으로는 국전 심사위원과 초대작가로 성신여대에서 미술을 지도하다 1976년 별세한 전남 영암 출신 동양화가 소송 김정현 작가의 무궁화 전지 작품 원판대미대에서 후진을 지도하다 정년퇴직한 벽강 류창희 화가의 무궁화 전지 작품 등 병풍, 가리개, 도자기, 대형작품과 소형 작품 부



무궁화 전시회 소장 작품.

체에 그린 작품 등 다양한 무궁화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무궁화를 예술작품의 주제로 선정해서 그리기 시작한 것은 조선시대와 일제 강점기에는 거의 보이지 않고 무궁화를 국화로 지정한 해방 이후로 보인다. 작품 제작자들을 보면 저명 화가들의 작품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으며, 순수하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국심을 가진 소시민 작가들이 그린 것이 대부분이고 그 수도 그리 많지 않다. 이영자 소장가는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

작품이 너무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다고 생각되며, 선조들이 열과 성을 다해 그린 예술작품을 잘 보존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된다는 일념으로 수집하게 되었는데 귀한 전시회를 열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완주군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무궁화 작품을 수집하여 가치 있는 나라사랑 무궁화 박물관을 만들어낼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행사관계자와 참여인사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참여형 행사로 기획됐다. /완주=이종복 기자

달빛아래서 즐기는 '김제 문화재 야행'

9월 2~4일 8개 분야 28개 체험·전시 프로그램 진행

'김제 문화재 야행'이 9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개최된다.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조선시대 행정기관인 관아와 교육기관인 향교 일원에서 문화재를 활용한 야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하는 이번 야행에서는 8개 분야 28개 체험 및 전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김제군수 정담장군을 주제로 한 창작소통극 '조선에서 온 정담'으로 스크린 홀로그램 기법을 활용하여 동헌에서 관람객과 소통하는 상황극이며, 다른 하나로 김제의 우수한 문화재를 미니야행과 야간 조형물로 제작 전시한 김제 문화재 미니야행랜드

가 있다. 또한 문화재를 활용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양한 먹거리와 특산물 판매장터도 마련하여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특히 달 모양의 대형 라이트 애드벌룬 등 향교 옆 공원에 포토존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야간 조명으로 일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에 위안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의 특색있는 역사와 문화자원을 활용한 김제 문화재 야행에 오셔서 아름다운 달빛 아래에서 우수한 김제의 문화재를 관람하고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기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소담 기획전시 참여작가 모집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전정희)는 8월 22일부터 9월 14일까지 3주간 2023 문화공간 소소담 기획전시 참여작가 모집한다. 센터 1층에 마련된 '소소담(談)' 갤러리는 누구나 쉽게 예술작품을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2016년 4월 개소한 이래 현재까지 도내 292명의 작가와 약 1,443점의 작품을 전시했다. 이에 따르면 문화공간 '소소담(談)'은 매달 새로운 작가의 다채로운 작품을 만날 수 있어 문화예술 대중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상



시 운영에 따라 도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열린 공간이다. 한편 소소담(談) 갤러리 전시를 희망하는 도내 신진 작가 또는 활동 중인 단체는 센터 홈페이지 내 전시작가 모집 공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정희 센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예술인들의 활력을 불어넣고 도내 재능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널리 알리는 데 힘쓸 것"이라며, "도민들의 우울감 해소를 위해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고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고 문화를 즐기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54-3813)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기자

2022 월간더문화

8월

바이올리니스트 이현웅

공연시간

8월 30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공연장소

문화공간 이름



반주 이선호

프로그램

J. Brahms
Violin Sonata No.1 In G Major Op.78

INTERMISSION

C. Schumann
Three Romances for violin and piano,
Op. 22

E. Grieg
Sonata No. 3 in C minor, Op. 45



전통문화전당, 한옥마을 '우리놀이 도장깨기' 진행

내달 3일부터 18일까지

추석 기간을 맞아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우리놀이'와 '도장깨기'를 주제로 전주한옥마을에서 스탬프투어를 진행한다. 전국 최초로 조성된 전통놀이문화 거점 공간 '우리놀이 마루달'은 9월 3~18일까지 전주한옥마을에서 '우리놀이 도장깨기' 행사를 진행한다. '전통놀이 현대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행사는 우리놀이와 스탬프투어를 결합한 현대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놀이문화를 진흥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전주한옥마을에 소재한 △우리놀이 마루달 △최명희 문화관 △전통술박물관 △전주부채문화관 △전주한옥마을 선비문화관에서 진행돼 우리놀이와 함께 즐거운 한옥마을 관광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우리놀이 마루달 야외마당에서 현장접수로 운영되며, 9월 3일~1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된다. 추석주간에는 9



일과 11일 진행된다. '우리놀이 도장깨기'는 전주한옥마을에서 지정된 문화시설을 방문해 각각의 미션을 수행 후 점수를 모아, 기념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한 놀이 프로그램이다.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 진행되는 미션은 △태가차기, △비투, △떡차치기, △비사치기, △칠교, △공기놀이 △화기부 △고누 등 우리놀이이다. 이 외에도 '도장깨기'는 달토끼를 찾아라 부대 행사를 통해 전주한옥마을에 배치된 토끼를 찾아 기념품을 추가 획득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김선태 원장은 "추석을 맞아 이번 행사를 통해 가족과 함께 즐겁고 소중한 추억을 쌓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대부분들이 전주한옥마을에 왔던 활기가 넘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30일 익산서 문화누리 문화장터 진행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익산 왕궁면 복지농원회관에서 문화누리 문화장터를 연다고 밝혔다. 문화누리 문화장터는 지역적 여건, 고령 등으로 문화 향유가 어려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기획한 사업으로, 각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이다. 이 사업은 문화누리카드 사용이 힘든 문화소외계층을 위해 도내 11개 시·군에서 하반기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문화누리 문화장터에서는 도내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 엄선한 문화상품을 직접 보고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일반 신용카드 또는 문화누리카드도 구입 가능하며, 문화누리카드도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선착순으로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 또는 재단 문화사업팀(063-230-7458)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한벽문화관, 내달부터 'LIVE 전주' 공연 활성화 무대지연

전주한벽문화관(관장 김철민)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예술활동이 어려운 공연예술단체의 실연 환경 개선을 위한 LIVE 전주 공연 활성화 무대지원사업을 9월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LIVE 전주는 전주를 연고로 하는 공연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예술가에게 가장 기본적인 환경 제공을 위한 대관을 중심으로, 웹을 바탕으로 한 홍보까지 지원해 공연예술단체의 우수 창작품 및 레퍼토리 제작 발표

촉진 및 지역문화 예술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선정단체는 전통그림 세모, 페탈 예술기획, 살롱드국악 선율모리리 총 3팀으로 11월까지 전주한벽문화관에서 각기 다른 장르의 공연을 펼친다. 자세한 공연 정보는 전주한벽문화관 누리집 또는 전주문화재단 브랜드공연팀(063-280-7030)으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